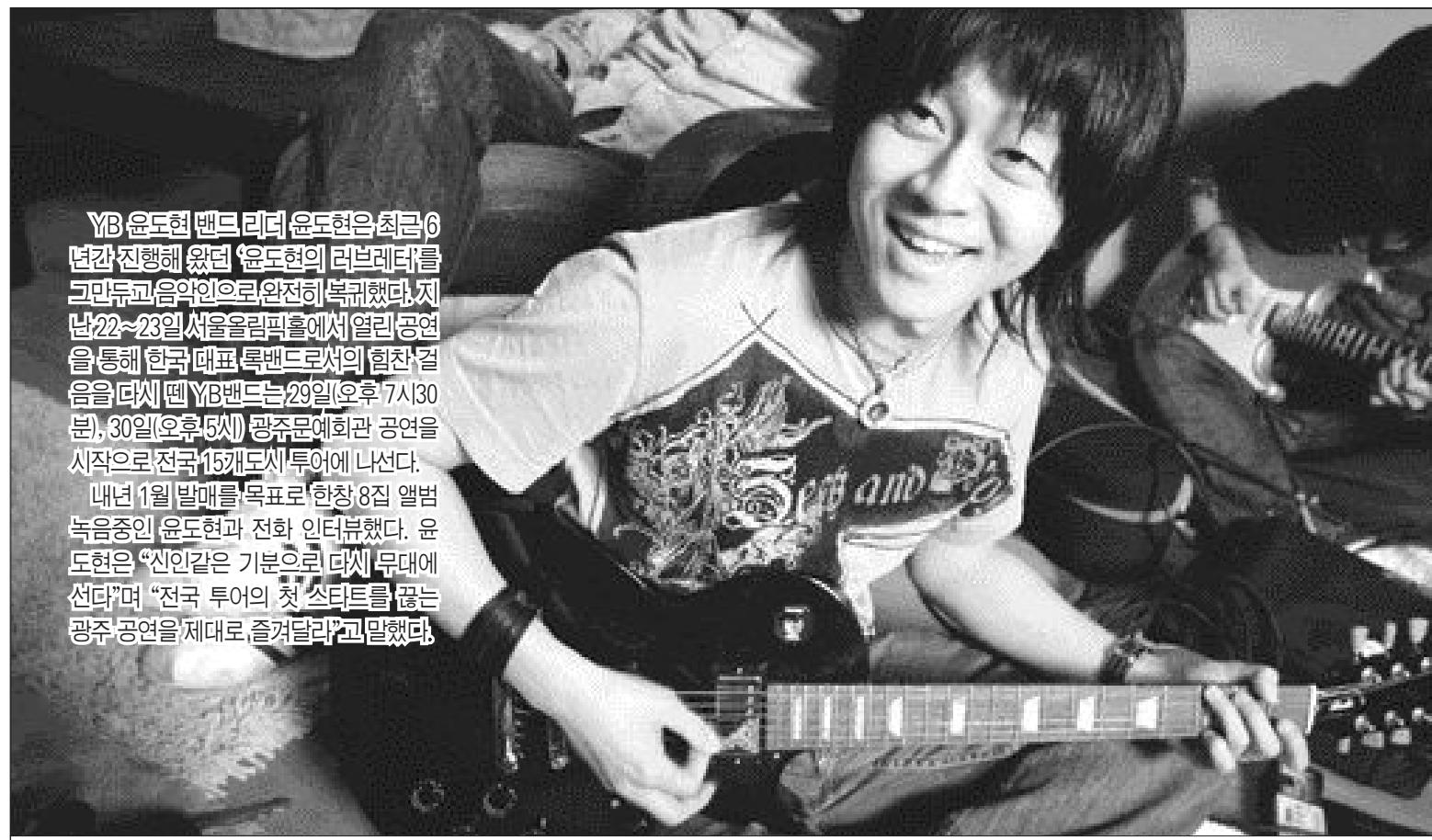


■ 29~30일 광주 콘서트 YB밴드 윤도현



YB윤도현[밴드리더]윤도현은최근6년간진행해온데'윤도현의러브레터'를그만두고음악으로완전히복귀했다.지난22~23일서울올림픽홀에서열린공연을통해한국대표록밴드로서의'힘찬'걸음을더시며YB밴드는29일오후7시30분,30일(오후5시)광주문화회관공연을시작으로전국15개도시투어에나선다.

내년1월발매를목표로한창8집앨범'녹음중인'윤도현과전화인터뷰했다.윤도현은"신인같은기분으로디씨무대에선다"며"전국투어의첫스테이트를'끊는광주'공연을제대로즐겨달라고말했다.

"뜨거운 공연 마음껏 즐겨 달라"

—음악인 윤도현으로 22일 서울서 공연을 가겠는데 다른 때와 느낌이 달랐을 것 같다.

▲ 공연 전 잠을 못 잔 적이 있는데 이번엔 잠을 설쳤다.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랬던 것 같다. 리허설 때 음향 등을 너무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생소하다. 신인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고, 기분이 아주 유쾌했다. 서 을공연은 우리가 기획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국 투어 첫 공연은 광주다. 기대가 크다.

— 광주 공연은 어떻게 진행되나.

▲ 오프닝으로 인디밴드 '고고 비트'가 출연하고 신곡은 '깃발' 등 5곡 정도 소개한다. 이번 신곡은 강한 비트와 메시지가 담긴 곡들이 다. 또 '박하사탕'처럼 예전 공연 팬 잘 부르지 않았던 곡들도 들려준다. 물론 '사랑했나봐', '너를 보내고' 등 밸리드도 부른다. 안하면 서운해하니까.(웃음).

— '러브레터' 막방에서 오랜 팬에 대한 배려가 보이던데 새 앨범은 그 마음을 담은 건가.

▲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반이 강한 루비트와 메시지가 담긴 2집이었다. 새 앨범은 2집과 가장 유사하다. 가사의 90%는 내가 썼다. 육심이 많아 내년 1월로 발

매가 늦어졌는데 이번 주 '록 투 미'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신곡 '깃발' 등 5곡 소개"

내년 미국 투어 계획"

— 그럼 '사랑했나봐' 같은 록 밸리드는 접은 건가. 서운해 하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 앞으로 그런 음악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밸리드는 지금 있는 곳으로도 충분하다.

히트한 곡도 많고, 비슷한 느낌의 곡을 또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곡이 그곡이라면 부를 이유가 없다. 다른 스타일로 만들기도 어렵고,

— '러브레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이유로 물려났다는 말도 있고

▲ '러브레터'를 하면서 얻은 것도 많아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방송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 부담도 있었다. 밴드인데 나만 너무 부각되는 것도 그렇고. 언론에 난 것처럼 새 음반과 전국투어, 미국 투어를 하게 된 게 그만둔 계기다. 나머지 이유는 뭐, 그냥 알아서 생각해달라.

— 영국 투어 때 힘들었는데 해외 문을 계속 두드리는 이유는 뭔가.

▲ 무엇보다 음악적으로 정체되는 게 싫다.

미국 공연은 한인 상대가 아니다. 보아나 비쳐

럼 화려하게 데뷔하는 게 아니고, 인디 레이블을 통해 바다부터 닦는 거다. 영국 투어는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밴드는 성장했다. 음악도 그 렇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도 배웠다.

— 다시 음악프로를 맡을 생각은 없나. 후임 인 이하나가 초대하고 싶다고 했는데.

▲ 사람 일은 장담할 수 없지만 진행자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듯하다. 지금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가수'로 출연해야지. 음반 나오고 불러주면 출연한다. 가수는 힘이 없어 불러줘야 가는 거다.(웃음)

— 뮤지컬 '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유다역이 인상적이었다. 요즘 출연 제안은 없나.

▲ 그 작품에 출연할 때 나도 참 좋았다. 웨버의 음악이 정말 매력적이었다. 방송 그만 두면서 뮤지컬 등 좋은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다. 최근엔 작품 섭외가 꽤 많이 들어온다.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 광주 관객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 광주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우리의 음악적인 성향, 지향점과 가장 유사한 도시가 광주다. 그래서 제일 기대된다. 새 앨범은 더욱 광주와 맞는 컨셉트이다. 현재 우리 심정도 그렇고, 뜨기운 공연이 될 거다. 마음껏 즐겨 달라.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글 잘 쓰는 법' 알려 드립니다

글쓰기 안내서 '봇물'

최근 각종 매체가 발달하면서 일반 인들도 글을 쓸 기회가 많아지자 글 쓰는 비법을 안내하는 서적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유명한 작가가 전하는 글쓰기 방법부터 각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까지 다양하다.

올해로 등단 40년째를 맞는 소설가 한승원씨는 지난 10월 '한승원의 글쓰기 비법 108가지'(푸르메)를 통해 글쓰기 인생을 통해 깨달은 글쓰기의 본질과 방법을 전했다.

얼마전 TV프로그램과 CF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소설가 이와수씨가 지난해 말 펴낸 '글쓰기의 공중부양'



(해냄)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랜덤하우스코리아는 최근 실제 글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세상 모든 글쓰기'(전 14권)를 펴냈다. '속담 활용 글쓰기', '영화 리뷰 쓰기', '신문기사 쓰기', '기획서·제작서 쓰기', '만화 리뷰 쓰기' 등 각 분야의 실용적 글쓰기 안내서와 글쓰기 교법의 고전인 '이태준의 문장강화' 등이 함께 출간됐다.

대중문화평론가 김봉석씨는 '전방

위 글쓰기'(바디출판사)에서 전업 글작가로 살아오는 동안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쓰기 위한 기본기와 구체적인 테크닉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개발자 희망보고서'를 낸 오병근씨와 '이틀나운 혁명, 공의 비즈니스'의 저자 홍승완씨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인생의 책쓰기'(위즈덤하우스)를 펴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책을 쓰게 된 동기부터 책을 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이밖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는 '아로리 총서' 시리즈로 동화작가 임정진씨의 '동화 쓰기 특강'과 작가 고정육씨의 '어린이 지식정보책 쓰기' 등을 펴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2009 올해의 작가 김형수 화백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26일 한국화가 석성(頃星) 김형수(80·사진) 화백을 '2009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

김 화백은 한국의 자연적 풍경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다. 그는 한국화의 대가 심산 노수현,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선생을 사사한 뒤 한·독 미술가협회 독일전 등에 출품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대전 신학대학, 전남대 예술대 미술과에 출강하기도 했다.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선정한 원로미술작가에 이 지역 작가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바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의 작가'상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11월 김 화백의 초대전을 개최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3년부터 작가를 선정해 초대전을 후원해 주는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에는 그동안 강연규(1993), 우제길(1995), 황영성(1996), 정승주(1997), 정승규(2006), 김영태(2007), 고승윤(2008) 화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신문협회 50년사' 발간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한국언론 50년을 신문협회의 역사

를 통해 정리한 '한국신문협회 50년

사'(사진)를 발간했다.

그동안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

편집계 단체의 역사

를 정리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신문협회 50년사'는 언론경영의 인정과 독립을 추구하면서 언론자유의 신장을 뒷받침하는 협회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담았다. 50년사는 일제 치하에서 광복 후의 언론단체가 어떻게 명멸했는지를 살펴보고 협회 창립 이후의 다양한 활동을 시기별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방송과 새로운 매체의 발달에 따라 신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오늘의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640여 쪽 분량에 담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청소년 뻔뻔(FUN)영화제'

29일 광산구청소년수련관

"미래의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들 모이세요."

광산구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제5회 청소년 뻔뻔(FUN)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청소년 영화제는 건전한 영상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영상창작활동 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으며 광주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청소년 영상활동가들이 함께한다.

'444-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청소년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굴려 가리라' 등을 비롯해 영화,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단편영화 12편이 상영된다.

이밖에 청소년 영화감독들과의 대화시간도 마련되며 시간이 비보이 댄스, 청소년 쥬니어 오크스트라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문의 062-971-5533.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보양음료 숙취마셨습니다
한국기능보호기금(보호기금)감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여 드십니까?
구모님처럼는 날마다 모부의 보양을 드립니다.
[주]국고당(062-267-7753)
광주 광양구 011-9612-5700

서울식 캐비리 나이트
방실이 VS 죄용필
오후 5시 ~ 9시 30분 / 오후 10시 30분 ~ 새벽 2시
서울카바리나이트
(대인동 101 대체화관 9F)